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B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①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 ⑥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꿩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꿩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②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④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규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이른바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⑦‘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⑧개미나 별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7.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18. 문맥상 ①과 ⑤의 관계와 같은 것은?

①	⑤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고래는 혜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혜엄칠 수 없는 고래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페기 도구이다	흑연 심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마컴’으로 정의 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균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20.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①~⑤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①가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⑤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므로 ④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④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아야겠어.
-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⑤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